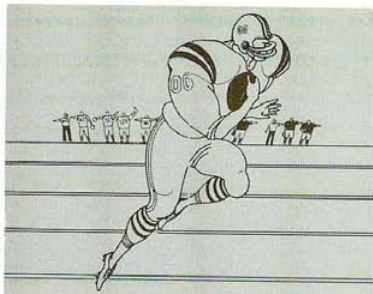


성도의 벗 7

1980





성도의 빛 7

1980

차 례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앤 엘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드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공키
엘튼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고문

영 러셀 발라드 이세
렉스 디 피네가
휴 더블류 피녹크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800원입니다.
일번호의 1권 구독료는
2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4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외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왕국의 결혼의 중요성.....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1
준비의 신권.....마빈 케이 가드너.....	8
선한 목자의 자리에 섬.....달라 라슨 헝스.....	12
질 의 응답.....	16
오 킨 안 칸테.....이보니 피 램프.....	19
특별한 어린이.....디어도어 엠 버튼 장로.....	22
새미의 새로운 가족.....	24
엄마 캥가루-진짜 애기 주머니.....캐롤 케이플.....	26
심심풀이.....	28
내 친구.....	29
결정이 운명을 바꾼다.....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30
올림픽에 선	
반대 방향의 헨리.....캐드린 군스 와 레이어드 로버츠.....	36
영을 동반할 때 무슨 일یدن	
할 수 있다.....비라 에이치 저지.....	39
지역 지도자 메시지.....김 차봉 서울 서 선교부장.....	44
지역 소식.....	46
해외 소식.....	48

통 권 : 제180호, 제16권 제 7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0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빌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진 수

1980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해의 왕국의 결혼의 중요성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결혼은 목전의 행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인간이 결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결혼이란 당사자 두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특히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누구와 결혼할 것이냐?”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은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바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합당한 사람과 합당한 장소에서 결혼한다면 여러분은 영원을 통해서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보다 나은 기

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준비와 생각이 없이 갑자기 결정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외모로만 평가해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서도 안됩니다. 결혼은 일생을 걸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결정보다도 이 결정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철저한 계획과 생각과 기도와 금식도 이행해야 합니다.

참다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두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하나로 융화되어야 합니다. 감정만으로 결정하여서는 안되며 금식과 기도와 깊은 사려로써 강화된 정신과 마음으로 임할 때 결혼 생활의 더 큰 행복이 보장될 것입니다.

종교가 서로 다른 결혼

나는 청소년들에게 종교가 서로 다른 사람끼리의 결혼의 위험에 대하여 경고한 바 있습니다……교회 밖에서 결혼함으로써 슬픔과 환멸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은 모든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스스로의 생각과 결정으로 못박아 버리려는 경향이 큽니다.

의로움으로 임할 때 영원한 행복이 약속되는 하나님의 신전이 있는데도, 많은 젊은이들이 치안 판사나 감독이나 성직자의 주례로 결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언짢아집니다.

여자의 경우 자기를 신전으로 데리고 갈 수 없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무척 근시안적인 선택이며, 또한 남자가 자기와 함께 신전에 갈 수 없는 여자를 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물론 회원과 결혼하는 비회원 중의 소수는 마침내 침례를 받습니다. 소수의 훌륭한 남자가 회원과 결혼한 후에 교회에 들어와서 매우 헌신적이고 활동적인 회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들에게 감사를 보냅니다. 그들은 축복받은 소수입니다.

또한 스스로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아도 친절하고 또 협조적이어서 배우자로 하여금 교회의 절차대로 예배하고 교회에 봉사하도록 허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빕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저 결혼하기 위해서만 교회에 들어왔다가 곧 계명에

따르는 생활을 버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혼하였습니다. 개중에는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계속 문제를 지니고 살며, 특히 가정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일곱 명 중의 한 명이 교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영영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결혼한 사람들의 절반이 비회원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종교를 버림으로써 점점 늘어나는 자손들은 종교없이 양육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마 우리가 결혼하면 그가 교회에 들어올 것입니다. 먼저 결혼부터 하고 나서 보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임하는 것은 절망적인 기회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선택은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젊은이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해결 것입니다. 잘 조절해 나갈 것입니다. 내 배우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허락할 것이며 나도 적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각자의 방법대로 살고 예배하면 됩니다.” 이것은 너그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원한 프로그램에 너그럽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해 동안 많은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훈련시키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직책을 얻고자 얼마나 열망했는지! 그들은 십일조를 바칠 수 있기를 얼마나 염원했는지! 신전에 가서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자신을 위한 의식을 수행하며, 영원히 인봉되고, 자녀들과도 영원히 인봉되기를 얼마나 원하였는지!

그러나 문이 굳게 잠긴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문을 닫아 걸었고, 그 문의 경첩에 녹이 쓴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사람들을 충분히 가르치지 않았거나, 그들이 경전을 공부하거나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들에게 심한 경교의 말씀을 무시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서 결혼하였습니다. 아마도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멋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그들은 그것을 경시하였습니다. 그는 왕국의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신권이나 의식이나 의로움 등 그들을 승영으로 이끌어 주는 데 필요한 것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회원은 모두 합당하고 비회원은 모두 불합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영원한 결혼 의식은 신전 밖에서는 가질 수 없으며 비회원은 신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들이 충분히 흥미를 갖는다면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표준이 다르고, 생활 태도가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른 사람이 결혼하여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종교상의 차이는 넓은 영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에 충실하겠다는 뜻도 깨지고 가족에게 성실하고자 하는 시도

도 파괴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고후 6:14) 아마도 바울은 종교적인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혼 신전 밖에서 이루어진 결혼의 경우 이혼의 위험성이 더 큽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는 신전에서 인봉된 결혼의 경우에는 16쌍 중 한 쌍이 이혼하는데 비하여 신전 밖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5.7쌍 중의 한 쌍이 이혼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전에서 인봉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2.5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례의 차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는 행복은 그들에게 즐거움과 화평을 주며, 그들과 그들의 자녀에게 승영으로 향하는 영적인 출발을 허가해 줍니다.

의식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의식을 갖기까지의 준비와 그 의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러한 결과를 성취하게 해줍니다. 의로운 생활, 신전 결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책임감, 그리고 성스러운 인봉 의식 등 이 모든 것이 결혼의 성약을 엄숙하게 만들고, 거룩한 가족의 유대를 이루게 하며, 영원한 결속을 이루게 하여 지속적인 축복의 결혼 생활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현세인이 영원인가? 인생은 영원하므로 그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사실입니다. 참된 결혼 생활도 역시 영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의식이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 결혼은 “죽음이 두 사람을 가를 때까지” 지속되며 죽음과 동시에 결혼의 유대는 끝납니다. 오직 해의 왕국의 결혼만이 무덤 너머까지 지속됩니다. 해의 왕국의 결혼은 이러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세워지고 헌납된 거룩한 신전 안에서 행하여집니다. 이러한 결혼만이 무덤을 넘어서까지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를 계속하도록 해줍니다.

일반 결혼은 사망과 함께 끝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남편과 아내일 것입니다.” 간절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저들에게도 기회는 이미 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그의 종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주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였거나,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었다면 약간 문제가 다릅니다. 그들은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며, 그들을 위한 대리 사업이 지상에서 수행될 것이고, 저들은 다시 연합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경전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증언과 간증을 들었고, 이미 가르침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이면 늦습니다! 우리가 의로웠다면 아마 천사가 될 수 있는 있을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도 해의 왕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역을 베푸는 천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의로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의로움은 두 가지의 중요

한 요소 중 하나이며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로움과 의식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봉 의식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그 의식을 받기 위하여 지구를 돌아서라도 갈 것입니다. 거리나 돈이나 장소나 그 밖의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신전에서 결혼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교리에는 예외나 편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확실한 프로그램을 따르느냐 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을 때, 목표를 성취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대학에서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업도 받지 않으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바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학위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영원한 프로그램이 될 엄격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미혼 남녀 나는 전체적인 면에서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 못한 젊은 남녀들을 더러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선교 사업을 마쳤고, 어떤 이들은 학교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혼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아직도 아름답고 바람직하여 유능하지마는 그들은 의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봉사할 때, 세상에 큰 것을 기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교회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자매 여

러분, 우리는 남자들의 맥박이나 애정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는 영원에 관한 한, 어떠한 영혼도, 고귀하고 풍요로운 영원의 축복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결코 그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며, 개개인 스스로가 잘못 행하지 않는 한 결국은 모든 의로운 사람이 받게 될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남녀 모두에게 몸가짐을 바르게 갖고 의복을 단정히 하며, 세상사에 대하여 밝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특히 정서적으로 호감이 가도록 몸가짐을 갖출 것을 권고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하늘의 축복을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에 더욱의탁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의 중요성 존경받을 만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이야말로 분명히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으뜸으로 여기는 목표입니다. 결혼이란 주님께서 튼튼하고 행복한 가정을 갖게 하시고 후손을 번창케 하시고자 계획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의로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프로그램을 좌절시키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에 아담과 이브, 곧 최초의 여자와 남자를 세워 두시고, 그들에게 남편과 아내가 되도록 거룩한 결혼 의식을 수행하심으로써 스스로 정상적 체계를 확립하였기 때문에 정상이라는 단어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 말은 바 임무와 모양이 서로 달랐습니다. 주님은 의식을 집행하시고 곧 이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

라...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 : 28)
결혼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며, 자녀를 낳는 것은 정상적이고도 합당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으므로 결혼하기를 원하고 결혼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방법입니다.

결혼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가족을 원하지 않는 사람, “나는 결혼하지 않겠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쉽게 이 결혼의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음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된 기사에 의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홀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쉽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그들은 결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젊은 자매 한 사람이 우리에게 그녀가 가끔 베이트를 하던 남자 친구가 결혼에 대하여 흥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편지에 써 보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젊은 남자들이 합당한 결혼 상대자를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구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충분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 정원회 회장인 한 청년은 너무 바빠서 결혼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바쁜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결혼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지는 않습니다. 장로 정원회 회장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청년은 축복사의 축복에서 결혼을 끝하게 되리라는 축복을 받았읍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혼 준비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이 받게 될 축복사의 축복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한 결코 성취되지 않읍니다.

어떤 청년은 우선 공부를 마쳐야 한다고 말하엿읍니다. 그러나 세상 교육을 끝마칠 때까지 결혼을 기다려야 할 필요는 없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후에 학교를 마쳤으며, 아내가 남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읍니다.

어떤 청년은 결혼하지 않고 주님의 사자로서 해의 왕국에서 승영에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는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해의 왕국의 결혼의 성약을 거절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영원한 왕국에서 승영에 이를 수 없읍니다.

“해의 왕국에는 세 하늘 곧 세 가지 등급이 있느니라.

“사람이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는 이 신권의 반차(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을 말함)에 참여해야 하느니라.

“만일 참여하지 못하면 이를 얻을 수 없느니라.

“저가 다른 곳에 들어갈 수 있으려니와 이는 저의 왕국의 마지막이니 저는 증진할 수 없느니라.”(교성 131 : 1-4)

그러한 자는 증진할 수 없읍니다! 승영할 수 없읍니다!

주님도 교리와 성약 132편에서 다시 말씀하셧읍니다.

“아무도 서약을 깨뜨리고서는 나의 영광에 들어움을 허락받을 수 없읍니다.”(교성 132 : 4)

아무도 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사람이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지식이 많으며, 얼마나 세련되어 있는가와 관계가 없읍니다. 성약 곧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의 성약을 맺지 않고서는 아무도 가장 높은 영광에 참여할 수 없읍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셧읍니다.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새롭고도 영원한 서약에 대하여 이르노라. 이는 나의 완전한 영광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완전함을 받는 자는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니, ……

“그러므로 저들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장가들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고 다만 하늘에서 천사로 임명되나니, 이 천사는 저들보다 훨씬 더 높은 영광에 합당하며 훌륭하고 영원한 값있는 영광에 합당한 자들을 받들어 봉사하는 중이니라.

“이들 천사는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 그러므로 저들은 증식할 수 없고 다만 따로 떨어져 홀로 있어 승영에 이를 수 없으며 구원받은 상태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나니, 이때로부터 신이 아니요, 다만 영구히 하나님의 천사가 되느니라.”(교성 132 : 6, 16-17)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천사가 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텐데.”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시중만 들어야 하고, 봉사하는 천사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결혼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결혼은 이 세상의 산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없이 여자만 있고 여자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고전 11:11)”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해의 왕국의 결혼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의 말일성도가 결혼으로 하나가 될 때, 영원에서 영원까지 연결될 그들의 자손을 위한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 자손의 세계에 끝도 없이 영광과 승영과 구원을 베풀고 통제하며,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자손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다음 세상에서 갖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밖에 인간이 무엇을 더 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세계에서 해의 왕국의 육신으로, 모든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해방되고, 형용할 수 없이 훌륭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안고서 후손들 가운데서서 그들을 다스리며 생명과 승영과 영광을 부여하는 남자와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렌조 스노우, 데저렛 주간지, 1897년 4월 3일, 481페이지)

이 프로그램의 방대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왕국의 의로운 회원,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고 현재와 영원을 위하여 인봉된 사람, 그리고 계속하여 의롭게 생활하는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프로그램이며 경전에 명백하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헛된 형식이나 속이 빈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표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써만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프로그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율법도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수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견해나 나의 견해가 그 율법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 오지 못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결국은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비는 공의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다만 몇 주 동안 약간의 공부를 하였다고 해서 대학교수가 여러분에게 박사 학위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도 공의를 희생하면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무한히 중요한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을 만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행을 기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혼이 합당한 결혼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합당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올바르게 전진의 길을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혼 전과 후에 항상 정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가장 큰 힘의 원천이며, 우리의 행복과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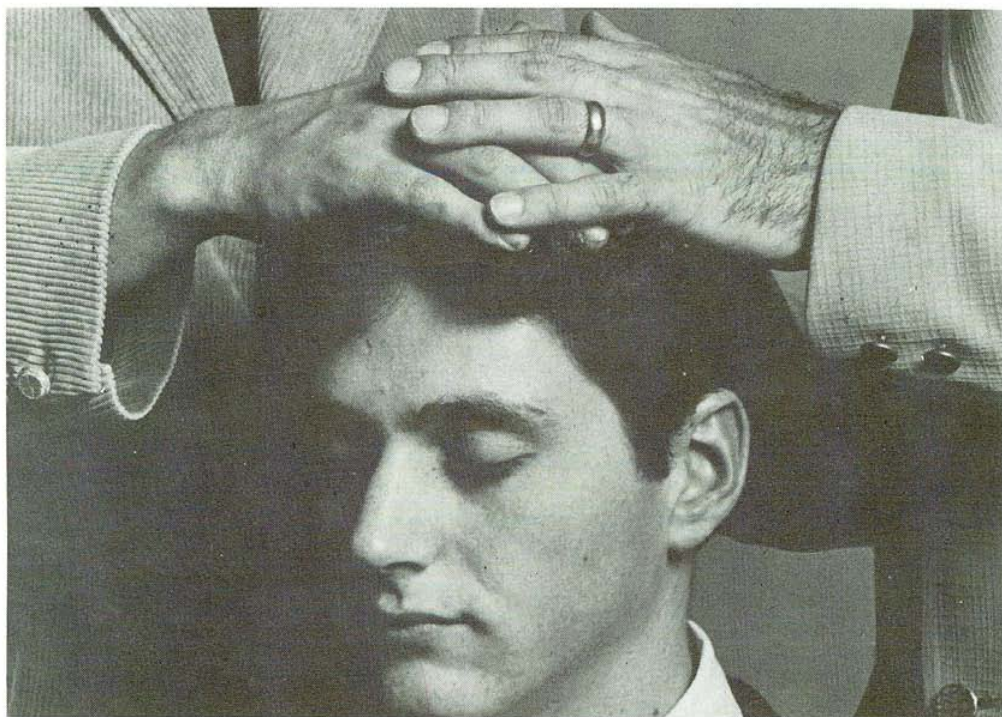
준비의 신권

마빈 케이 가드너

일 포드 우드럽이 아론 신권의 제사로서 1834년 알칸자스와 테네시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그는 거룩하신 능력에 의하여 극적으로 생명을 보호받았으며, 그는 자주 천사의 성역을 통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후에 아론 신권의 권능에 대하여 간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

“사람은 신권의 직분에 대하여 부끄

러워해서는 안됩니다.자신의 부름을 충실히 수행하기만 한다면, 제사이든 사도이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사는 성역을 베푸는 천사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로서, 칠십인으로서 또는 장로로서 내가 제사의 직분을 지니고 있을 때보다 더 크게 주님의 보호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시현으로, 계시로, 성



신으로 여러 가지를 보여 주시고 제시해 주셨습니다.”(월포드 우드렘 설교집, 지호머 더럼 편집, [솔드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46년], 298, 300페이지)

일반적으로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론 신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합니다. 이 신권의 직분의 위엄과 신권의 권세는 불변합니다.

신권 훈련

젊은이들이 그들의 신권을 사용할 때 그들은 교회에서 중요한 봉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신권의 능력의 가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케네드 마이클리아가 복음으로 마음을 돌이켰을 때,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 제1와드의 제사 정원회가 감독의 지시에 따라 모든 침례 준비의 책임을 맡아 처리하였습니다. 17세의 제사가 침례식의 사회를 했고 다른 제사가 합당한 영적인 말씀을 맡았으며, 또 다른 제사가 그를 침례하였습니다.

다음 몇 개월 동안에 케네드는 아론 신권을 받고 집사, 교사, 제사로 성임되었는데……이 모든 일이 그의 동료 제사 정원회 회원들에 의하여 행해졌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은 의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라고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 스테이크의 토마스 에이 홀트 형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권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들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현재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 신권은 또한 청소년으로 하여금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준비를 갖추도록 해줍니다. 집사, 교사 그리고 제사들에

게 귀중한 현임 지도자 훈련이 제공됩니다. 주례 정원회 회장단 모임 중에 갖는 20분 내지 30분간의 훈련 모임에서 사용되는 아론 신권 정원회 지도서는 정원회 감리, 위임 및 확인, 정원회 회원 교육 및 활동 촉진, 그리고 선교 사업의 준비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유익한 내용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 모임은 효율적인가?

그렇습니다 라고 청소년과 신권 지도자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와이오밍주 호벨에서 온 제사인 랜디 베즈 형제는 그가 잠사 정원회 회장이었을 때, 그는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특별 활동을 계획하고, 모든 준비를 완료하며, 프로그램 전체를 운영해 나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은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터득하였습니다.”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제사 정원회의 일원으로 감독의 제1보좌인 그는 지금 말은 임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기대되는 결과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해 주며, 기회를 만들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깐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훨씬 많은 제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라고 랜디는 말합니다.

본부 청남 조직의 회장인 닐 더 웨어리 형제는 이런 형태의 지도자 훈련이 매우 가치있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이 자기 아론 신권의 지도자 위치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웨어리 회장은 그가 감독관에 있었을 때 이를 실행해 보았는데, 출석율이 높아지고, 청소년들은 지도자가 베푸는 이러한 기

회를 정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회장단은 영감을 통하여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형제들이 이 직분에서 봉사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들은 각 정원회를 떠나기 전에 몇 달 동안 지도자의 경험을 쌓을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지도력과 봉사와 간증 등 그들이 벨기세빅 신권 소유자로서 선교 사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모든 것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선교 사업을 위한 준비

“쉐어리 회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선교사 준비는 일찌기 아론 신권에서부터 시작되며,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선교사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멕시코 로즈웰 스테이크, 클로비스 와드의 윌라드 알 필립스 감독은 집사와 개별적으로 갖는 첫번째 접견에서 선교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는 소년들에게 그와 예언자와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교 사업에 대하여 준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례로(제사의 경우에는 일년에 두 번씩) 그들과 함께 그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필수 조건에 대하여 토론합니다.

하드포드 코네티컷 스테이크, 서딩튼 와드의 돈 에이 플로리안 감독은 명부를 작성하여 모든 청소년이 일년에 적어도 두 번씩 성찬식에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선교 사업 자금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염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제사들이 와드에 배치된 복음 선교사들과 긴밀한 유대를 갖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제사들은 선교사의 복장 표준을 지키면서 구도자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풁니다.

가정 복음 교육도 청소년에게 선교 사업을 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예를 들면, 유타주 프로보의 폴 닐슨 형제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가정 복음 교사로서 비활동화된 세 가족을 지명받아 봉사하였습니다. 그는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간 후에, 자기가 방문했던 가족 중의 한 가족이 신전에 가서 인봉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열심히 일하고 스페인어를 열심히 배우며 토론을 배우도록 동기를 준 가장 큰 계기였습니다.”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나의 선교 사업의 첫번째 열매가 그토록 큰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성공적인 선교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더욱 굳게 하였습니다.”

봉사의 기회

아론 신권 정원회의 주요 목표는 의미있는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아론 신권 정원회 지도서는 그러한 정원회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도록 회장단을 훈련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트레이크 월포드 스테이크, 그랜드뷰 제1와드의 교사 정원회는 익명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 계획은 평상시에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던 정원회 회원들까지도 흥분시켰습니다. 한번은 와드 청남 회장이 지하실을 파고 있을 때, 소년들은 한밤중에 이 일을 끝마

치고는 그들의 방문 카드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 카드는 외투 깃을 올리고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의 실루엣 남자 그림이 있고, “그랜드뷰 와드 유명”이라는 서명이 있는 카드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어머니들의 도움을 빌어서 빵과 파이를 구워 이웃집 문앞에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차도의 눈을 치우기도 하였고, 병든 사람에게 위문 카드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바쁜 교사 정원회 회장의 자전거를 정원회 회원 한 사람이 수리해 놓고는 “유명” 카드만을 놓고 갔을 때, 그에게 봉사의 보상이 직접적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리조나주 튜선 제11와드의 마이클 몰러 감독은 그 와드의 제사들은 집을 비우고 떠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정규적인 봉사 활동을 즐겨 행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일요일이면 그들은 집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방문하여 짧은 성찬식을 집행하고 사교적인 교류도 갖습니다. “이것은 젊은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책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라고 몰러 감독은 말합니다.

그들이 의미있는 봉사 사업에 참여할 때 그들은 자신을 바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유타주, 페이슨에 사는 14세의 교사인 태일 드래퍼 형제는 그가 즐기는 희생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아주 훌륭한 것이지요.”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밖의 유익

아론 신권은 청소년 생활의 다른 분야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다

호주 남파에 사는 17세의 제사인 바트 맥 나이트 형제는 신권이 자기와 아버지와 사이에 무엇인가를 더해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신권에 관하여 많이 이야기합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생애에 닥치는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며 주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에 대하여 토론하기도 쉬워지지요. ……아빠는 저의 친구이기도 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입니다. 아론 신권의 경험은 청소년에게 결혼과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한 준비도 갖추게 합니다. 사실 청소년이 지도력, 선교사, 그리고 봉사의 기술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며,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배울 때, ……이러한 모든 것은 미래의 가장의 역할을 위하여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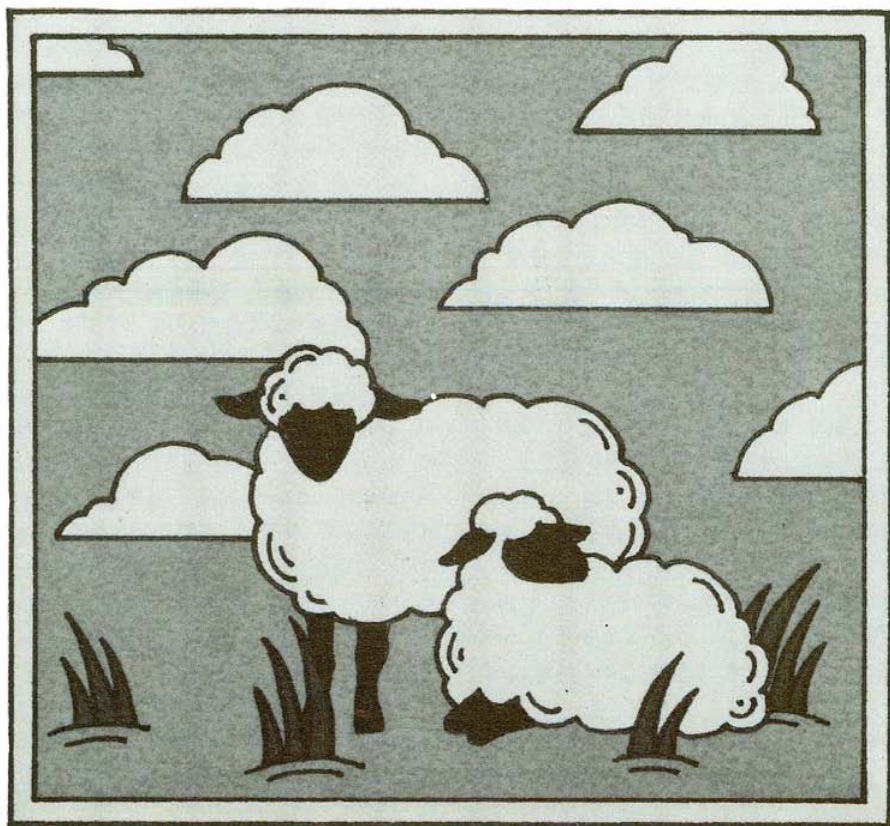
이 모든 것이 청소년과 아론 신권 정원회에게 부탁하기에 너무 과한 것일까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그렇게 앓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청소년에게 봉사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너무 많은 중요한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서 비활동 회원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복음이 인간의 생활에서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한 청소년이라면 아무도 주님의 왕국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버려 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

“우리는 왕 같은 세대를 양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행해야 할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엘사인, 1976년 5월호, 45페이지) *

선한
목자의 자리에
섬

달라 라슨 헝스



아기의 울음 소리에 마가렛은 피로한 듯이 눈을 떴다. “이럴 때 독감에 걸릴게 뭐람.” 그녀는 온몸이 쭈시고, 머리가 무거운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사업 관제로 출장중이었으며, 그녀는 어린 두 아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울어떨 것을 알았다.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친척이나 친한 친구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다.

마가렛은 간신히 일어나서 아이들의 아침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너무나 몸이 아파서 눈물이 쏟아졌다. 간신히 다시 침대에 누울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열과 오한으로 몸을 떨었다. 두 살된 마틴과 한 살인 켈리는 그녀를 이해하기엔 너무도 어렸기 때문에 곧 그녀에게 기어 올라 같이 놀아 달라고 하였다.

시간이 좀더 지나자 마가렛의 문제는 더욱 커졌다. 켈리가 그녀와 비슷한 증세를 나타내면서 보채는 것이었다. 켈리의 열이 오르자 그녀는 더욱 더 낙심이 되었다.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는데 어떻게 아픈 아기를 돌볼 수 있나?” 하고 그녀는 생각하였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을 때 그녀는 크게 안심하였다. 누군가가 그녀의 이같은 곤경을 알기만 한다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몸이 뜨거운 어린 켈리를 안고, 그녀는 가운을 걸치고는 마틴과 함께 더듬거리면서 침실을 나섰다. 찾아온 사람은 지난주 상호부조회에서 그녀에게 다정하게 대해 주었던 와드의 활동 회원이자 그녀의 이웃인 쿡 자매였다.

“어머나, 쿡 자매님, 오셔서 정말 반가워요!” 마가렛은 허겁지겁 말하였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켈리에게도 옮았나봐요.”

“저런, 안됐군요.” 쿡 자매가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다. “사실은 다음주 상호부조회 공과를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러 잠시 들렀어요. 제가 사회 관계 교사잖아요.” 쿡 자매는 마가렛에게 타자가 처진 흰 종이를 건네 주었다.

“그러죠.” 마가렛은 눈을 떨구며 중얼거렸다.

쿡 자매는 여전히 명랑한 어조로 말을 계속하였다. “고마워요. 이제 가 봐야겠어요. 맥앨리스터 자매와 함께 오늘 아침에 방문 교육을 하기로 했거든요. 몸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마가렛은 자존심 때문에, 예의바른 인사 이상의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와서는 켈리를 안은 채 의자에 주저 앉았다. 울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마가렛은 그녀의 떨리는 손에 구겨져 있는 종이 조각을 보았다. 제목은 “내 양을 먹이라”였다. (요 21:16 참조) 쿡 자매의 행동과 그녀가 자기에게 건네 준 이 종이에 적혀 있는 말과의 모순으로 마가렛은 눈물섞인 얇은 미소를 짓고 말았다.

우리는 하루의 일과 중에서 주위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 사항을 인식하지 못하고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그릇된 우선 순위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한 채 밤에 잠자리에 들게 되는 주님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 열중한 나머지 종종 다른 사람의 생활에 있는 작은 위기를 묵과해 버리고 만다. 그러한 위기는 덜 극적이기 때문에 잘 실감하지 못

하고 급박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우리 중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훌륭한 기존 프로그램에 너무도 얽매어 있어서 이러한 인간의 현실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는 무감각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택한 모든 훌륭한 결과에 대하여 자축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선을 행하는 기본 정의가 슬프게도 불완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 해 전에 유타 주립 대학의 신학 연구원 반에서 어떤 훌륭한 교사 한 사람이 감동적인 공과를 가르친 일이 있다. 그는 반 학생들에게 자신이 복음대로 실지로 생활하기 위하여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열거하게 하였다. 대부분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것들이었다. “나는 정규적으로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나는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나는 경전을 공부하고 있다” “나는 정규적으로 기도한다.” 교사는 이러한 열거된 모든 활동은 복음을 생활화하기 위한 준비일 뿐이지 참으로 복음대로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지적해 주었다.

교회 모임에서 수많은 공과와 말씀을 듣거나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듣고 가르치는 원리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한, 그것이 의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정직에 대하여 수백 번씩 공과를 들었어도, 그 원리를 우리의 실 사회 생활에 완전히 실행하는데 “쓰여지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는가?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더라도, 그것을 다만 지혜의 말씀을 지

키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거나 또는 경전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행동이 사랑이 없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아무리 정규적으로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참으로 주님과 서로 교통하는 대화의 기도가 되고 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힘과 인도의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닌 한, 그 기도가 우리를 활동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지는 못한다. 병든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 달라는 열렬한 기도일지라도 들어주기를 갈망하는 어린이를 부정하게 지나쳐 버린다는지, 병든 이웃을 외면한다면 한낱 공허한 말에 불과할 것이다.

경전을 읽고, 듣고, 모임에 참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자녀와 더불어,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긍정적인 행동이다.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약 1:22) 도를 행한다는 말은 주님의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 그들이 실제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고 그들의 마음속까지도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고, 불편을 무릅쓰며, 필요하면 약속까지도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중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율법의 영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구

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찌니라”(마 23 : 23)

많은 말일성도들은 삶의 진로를 변경시켜 주기에 충분했던 이와 같은 삶의 경험을 쌓았다.

다음에 소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실화이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러슨 자매는 강의와 여행 그리고 여러 가지 잔 일들로 쉴틈이 없는 길고도 바쁜 하루를 지냈다. 저녁 때 그녀는 롱비치 스테이크에서 청년들에게 도덕에 관하여 영적인 말씀을 하였다. 그곳에 특별히 조이스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그 말씀에 깊이 감동을 받았고 마음에 크게 근심을 하게 되었다.

모임이 끝나자 러슨 자매는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에게 둘러싸였다. 조이스는 그들과 합세하지도,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하면서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다른 소녀들이 모두 떠날 때까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이지 않게 맨 뒷줄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매우 늦은 시각이었다. 러슨 자매는 몹시 피곤하여 어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집에까지 가려면 한참이나 차를 몰고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스테이크 역원들이 불을 끄고 건물의 문을 잠그고 있었다. 조이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조바심을 하면서 러슨 자매가 소지품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 몇 번이나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그녀는 재빨리 몸을 돌려서 조급한 음성으로 말하였다. “저, 러슨 자매님, 저와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러슨 자매는 피곤한 것도 잊은 채 조이스의 등 뒤로 팔을 돌려 잡고는

건물 맨 앞 계단에 가서 앉았다.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크 지도자가 떠나는 것을 본 후에 조이스는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일생에 영원한 오점을 남길 만한 실수를 저지를 위기에 서 있었다. 러슨 자매의 권고와 도움이 그녀를 그같은 실수로부터 막아 주었던 것이다.

조이스는 러슨 자매의 집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8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으므로 조이스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 위하여 러슨 자매는 160킬로미터나 더 차를 몰아야 했다. 러슨 자매는 한 킬로미터 한 킬로미터를 조심스럽게 조이스의 감정에 귀기울이고 그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차를 몰았다. 조이스는 차에서 내리면서 러슨 자매에게 자기가 부모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으며, 결코 다시는 그와 같은 곤경에 자신을 처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몇 년 후, 러슨 자매가 로스앤젤레스 신전에서 모임에 참석하고 있을 때,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가 뛰어나와 그녀에게 매달리는 것을 보고 놀랐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지요?” 신부가 말하였다.

“조이스예요. 5년 전 가든 그로브에서 저를 큰 실수에서 구해 주셨지요. 러슨 자매님, 그날 밤 시간을 내주셔서 저의 말을 들어주시고 도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이곳에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기쁨은 이처럼 큰 것이다. 그리고 결혼한 목자도 참으로 아쉽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약 1 : 22)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저는 항상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신앙을 갖고 있으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린드세이 알 커티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선교부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같은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는 모두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문제로 고민하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 갈 때에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절실하게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의 요구가 더욱 크게 증대되는 것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제 기도를 들으십니까?”라는 투정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명해 집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현명하지 않게 일하시거나 일시적인 충동으로 일을 처

리하지 않으시며 이미 정해진 원리에 따라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그가 우리를 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반적인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구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주 주께서 즉시로 응답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즉시로……또는 일주일 내로, 한 달 내로……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주님이 결코 응답해 주지 않으시려 한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한 응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결코 약속받지 않았으며, 또한 즉시로 응답을 받으리라는 약속도 받지 않았읍니다.

두번째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끊임없이 다른 정보들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드릴 때 무릎 밑으로 딱딱한 바닥을 느끼게 되고 꼭 쥔 두 손을 느끼게 됩니다. 트럭이 집 옆을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빗방울이 창틀을 때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시계 소리도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듣기에 충분한 영적인 고요를 찾지 못한 채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일을 더 느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법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곧 일어나 잠자리에 들거나, 직장으로 나가거나, 가족들과 기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듣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상황에서 영적인 교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데에는 실천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문제는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우리에게 오하려 후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응답을 받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내적인 방해 요소뿐만 아니라 외적인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영을 느낄 수 있는 여유를 가짐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할 때 또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해주시리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올리버 카우더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원리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받았읍니다. “보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깊이 생각지도 아

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배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교성 9:7) 그런 다음 주님은 과정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연구하고, 그 문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을 깊이 생각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 나아가서 그의 승인, 새로운 지시 또는 권고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해져든 안될 것을 구하지”(교성 8:10)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롭지 않은 것을 구합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주님은 참으로 친절하게 우리의 요구를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몹시 원하는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 이외의 다른 응답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로울 것을 아시고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기꺼이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채를 청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는 앉아서 누군가가 와서 기적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돈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린다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부채를 청산하도록 간구한다면 부채를 청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여야 합니다. 선교사가 마음에 정직한 사람들에게 인도되기를 기도한다면 그들은 그들에게 보여진 방향으로 기꺼이 발길을 옮겨야 합니다. 간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계명을 공부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넷째, 기도의 응답이 올 때 그것을 깨닫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위의 것을 모두 행하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

려는 바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가 단지 주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응답이 와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은 참으로 많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종종 하늘의 방문을 받았읍니다. 모세는 불불는 가시나무 덤불에서 음성을 들었읍니다. 어떤 사람은 꿈으로 받읍니다. 나는 한번도 그러한 꿈이나 시현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다른 곳에서 나에게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이 들렸던 적도 없었음을 고백하여야겠읍니다. 그러나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 이노스처럼 그것을 구연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울부짖고 있을 때에, 보라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다시 임하시어”(이노 10절)

이것이 주께서 일반적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방법이 내게 가장 익숙하다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는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교성 9:8 참조) 그같은 느낌은 자기 다른 사람에게 자기 다른 방법으로 온다고 배웠읍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슴이 따뜻해지고, 어떤 이에게는 마음이 고조되는 느낌으로 오며, 또 어떤 이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주께서 가장 많이 언급한 기도의 응답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요셉 스미스, 올리버 카우드리,

하이람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은 기도의 응답 방법에 대하여, 마음을 밝혀 주는 것, 마음에 평안을 일러 주는 것,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는 것, 그리고 영육을 기쁨으로 채우는 것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교성 6:15, 23, 8:2, 11:13—14 참조) 그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배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매때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아니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같은 응답은 “무감각”(교성 9:9)의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어두운 느낌, 평정을 잃고 불안한 느낌, 초조함 등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안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한번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언급한 모든 원리를 기억하면서 의롭게 주님께 도움과 권고를 구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잔인하고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성장하고 진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의 동생 야고보에게 그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읍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또는 위안을 필요로 하거나 인도를 구하거나 죄의 사슬을 이기도록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하늘의 도움을 원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약 1:5—6) *



오 킨 안 칸 테

나의 엄마의 이름은 “부드러운 마음”이란 뜻이다.

내 생애에 많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쳤다.

(실화에 근거를 둠)

이보니 피 렘프

오 킨 안 칸테는 나의 어머니의 이름이다. 우리가 사는 네바다의 작은 마을 사람들은 나의 어머니를 버지니아라고 불렀지만 어머니의 이름이 나의 민족의 언어로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뜻이며 그 인디언 이름이 그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봄날의 동 트기 전의 아침처럼 조용하였고, 스스로 계획하는 일은 언제나 완수했으며, 늘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가를 생각하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생명의 은사를 얼마나 감사히 여겼는지!

백인인 나의 아버지는 여러 해 전에 돌아 가셨고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나의 어머니는 우리를 키우기 위하여 갖은 고생을 다 하셨다. 우리를 잘라 놓은 것은 우리 부모의 결혼이 아니라 가난이었다. 우리와 같은 가족은 많이 있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정하고 일반적으로 계급 차별을 하지

않았다.

십이년 전, 선교사들이 오 킨 안 칸테의 부드러운 마음에 영향을 준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녀는 이해력과 통찰력을 갖게 되었고 외적으로도 크게 변화되었다. 그녀에게서 발산되는 정감과 사랑의 기운은 분명하고 값진 것이었다.

그 영향은 그녀의 일애까지도 나타났다. 월요일에 그녀는 윌슨 부인, 브라운 부인, 그리고 디크로이 부인의 집을 청소하였고, 화요일에는 드래퍼 부인과 블랙번 부인의 집에서 다림질을 하였다. 수요일에는 프라이스 부인에게 갔다. 프라이스 부인은 여러 해 전에 몸이 부자유스럽게 되었고 그 후론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였다. 그녀는 매우 가난하였다. 매리 프라이스 부인은 “다음주에 지불하겠어요.”라고 말하였고, 나의 어머니도 항상, “지난 주일에 돈을 너무 많이 주

졌기 때문에 아직도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걸요. 돈 이야기로 오히려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어머니가 그곳에서 한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어머니는 프라이스 부인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동시에 그녀의 자존심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오 킨 얀 칸테는 그 두 가지 일을 다했던 것이다.

수요일은 또 다른 이유에서 특별한 날이었다. 상호부조회 날이다. 오 킨 얀 칸테는 자매들과의 긴밀한 교제를 좋아하였고 늘 이렇게 말하였다. “애야, 학교라고는 문턱에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내가 천국처럼 먼 곳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렴. 나는 상호부조회에 갔다 오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 어머니는 상호부조회에서 들은 음악을 일주일 내내 콧노래로 되풀이해서 부르시곤 했다.

목요일에 오 킨 얀 칸테는 마을의 오직 하나뿐인 상점 뒷방을 치우는 일을 하였다. 상자와 자루를 치우는 일은 허리가 부러지는 듯한 힘든 일이었지만 다른 어떤 일보다도 임금에 많았기 때문에 식량을 사기에 충분한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금요일에는 사람들의 옷을 고치고 바느질을 해주었고, 토요일에도 파티를 위한 빵과 과자를 구웠다. 주일은 어머니의 휴식 날이었다. 주일학교와 성찬식 모임 사이의 시간을 어머니는 내가 읽어 드리는 것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이제야 나는 그때 좀 더 어머니의 지식에 대한 갈망을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어느 날 학교에서 어떤 소녀가 내게 함께 동행했던 레이맨인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커다란 시련이 내 생애를 위협한 것 같다. 동행했던 사람은 나의 어머니였으며, 갑자기 나는 백인 행세를 해도 별 탈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응, 오 킨 얀 칸테라

는 사람이야.”라고 얼버무려 말하고는 화제를 바꾸었다.

그때의 일은 내가 솔트레이크시티의 간호 훈련원에 가기 위해서 집을 정리할 때에도 내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었다. 대학이란 어머니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꿈에 불과했었고 그 꿈이 실현된다는 사실은 나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나는 열심히 일하였고 학교 생활을 즐겼다. 산부인과에서 하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어머니도 승낙하였다. 물론 나는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전학년의 학비를 내기에 충분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해 가을에 우리 마을에서 또 다른 가족이 딸을 학교에 보내게 되었다. 그들은 오 킨 얀 칸테에게 그들과 함께 오라고 권하였다. 그들이 머물게 될 솔트레이크 친척의 집에는 어머니가 머물 방이 있었다. 나를 보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는 그들과 함께 오셨다.

나도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나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갖지 못했던 나는 그때까지 한번도 내가 인디안의 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나의 절친한 친구였던 아이도 아리조나주 출신의 인디언이었는데도 말이다.

오 킨 얀 칸테는 그들의 마을에 도착하자 전화하였다. 어머니의 음성은 조용하였으나 피곤하였다. (어머니는 일생 동안 오백리 이상 여행해 본 적이 없는 분이셨다. 그것은 가족의 장례 때문에 네바다 리노까지 단 두 번 갔던 것이다.) 나는 택시를 타고 어머니가 제실 집으로 갔다. 초록색 지붕의 잘 정리된 넓은 정원이 있는 흰 집이었다. 게다가 수위까지 있는 집이었다. 나는 것처럼 큰

부자집은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문 안에서 기다리고 계신 어머니를 부둥켜안았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또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놀란듯이 우리를 지켜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마 그들은 생전 처음으로 레이먼인을 본 것 같았다. 어머니의 친딸인 나도 그들의 눈으로 어머니를 보았고, 어머니에게로부터 주춤거리게 되는 나 자신을 느꼈다.

우리의 네바다 친구들은 급히 의논을 하더니, 그들이 당초에 어머니를 앉히려고 계획했던 부엌이 아니라 식당 식탁에 우리와 함께 앉게 하였다. 그러나 나는 식사를 하는 동안 내내 수치감과 굴욕으로.....그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에 대해서.....완전히 고립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베개와 담요 그리고 간이 침대를 받아 부엌에서 주무셨다.

네바다 친구들은 한 이틀 동안 여행을 하기로 했던 그들의 계획을 취소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오 킨 안 칸테는 신전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신전을 구경할 기회도 갖지 못하였다. 나도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갈색 손으로 내 이마를 부드럽게 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애야! 네가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을 빈다. 내게 그토록 친절하게 해주신 이 훌륭한 사람들처럼 되어라.” 어머니는 진정으로 하신 말씀이었다. 예리한 칼로 가슴을 저미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나는 울고 또 울었다.

다음 여름을 나는 집에서 지냈다. 그리고 친구로부터 어머니가 솔트레이크에서 오신 후로 계속 아름답고 정교한 침대보를 만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내 친구는 아마 그것이 나에게 줄 선물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한번도 그것을 보지 못하였고, 어머니도 그것에 관하여 한번도 언급하지 않으셨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나 거닐다가 흐린 불빛 아래서 훌륭한 침대보를 수놓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게 되었다. 흰색의 사각 형질에 붉은 장미와 분홍 장미가 수놓여 있었고 사방으로는 푸른 잎이 둘러 있는 것이었다.

“엄마! 이거 내거예요?”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오 킨 안 칸테는 그 침대보를 정성스럽게 가방 안에 넣으시면서 이렇게 물으셨다. “이것을 내가 전에 하루 묵었던 그집 사람에게 갖다 줄 수 있겠니? 감사의 선물 이란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사람들은 엄마에게 잔인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 것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예요.” 나는 흐느꼈다.

유순하지만 한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나는 교회 회원이다. 교회는 우리에게 더 나은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 우리는 용서해야 해. 불친절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겠니? 나는 구세주와 그의 왕국의 백성이 내게 기대하실 일을 했을 뿐이다. 나쁜 마음을 오래 갖고 있지 말거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 주진라.”

나는 돌아섰다. 눈물이 조용히 내 얼굴을 적시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들을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나도 용서하셨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마음의 선물이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레이먼인과 백인의 이름을 주셨다. 나의 레이먼 이름 “트와니카”는 “기꺼이 노력한다”는 의미이다. *



옛 날에 서로 매우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아줄 수 있고 재울 수 있으며 사랑을 쏟을 수 있는 그들의 아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한 아기를 그들에게 보내 주십사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이들 부부는 멀리 떨어진 도시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들에게 어린 아기가 있는데 이 부부가 양자를 삼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부부는 기쁨에 흥분된 마음으로 그들의 자동차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도시에 도착하자 어떤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방으로 안내되었는데 방안에는 커다란 침대 가운데 누워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첫눈에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

다. 부부가 혼자서 누워 있는 어린 아기를 보았을 때 그들은 즉시로 그 아기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아기를 그들 자신의 아들로 삼기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기에 대한 큰 기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 가운데 그들이 이 아기를 그들의 참 아들로 데리고 있을 수 없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선 판사에게 가서 그들이 이 아기를 법에 따라서 입양할 수 있는지 물어야 했습니다. 판사는 이 어린 아기가 올바르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선 이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지, 부부가 훌륭하고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아기를 양육시키기에 충분한 돈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판사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부부의 어린 아기에 대한 사랑



특별한 어린이

디어도어 엠 버튼 장로

은 점점 커갔습니다. 마침내 판사는 이 부부에게 아기를 입양할 수 있는 법적 인가를 해주었고, 그 일이 수행되었습니다. 이제 아기는 그들의 특별한 친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 게 되리라는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부부에게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만 이 아기를 자녀로 삼을 수 있는 허락을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기를 그 이상으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 으며, 예수님은 판사보다 더 권능이 많 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기를 이 세상에서 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 부부에게 주 실 수 있었습니다.

입양 문서에 서명이 끝나고 아기에게 이름이 주어지자 그들은 아기를 데리고 하나님의 신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흰 옷으로 갈아 입고, 아기에게 도 흰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신전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 았습니다. 특별한 신권을 소유한 사람 이 이 어린 아기를 그의 새로운 아빠와 엄마에게 인봉하여 가족이 영원토록 하 나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이 아 기는 정말로 그들의 아들이 된 것이었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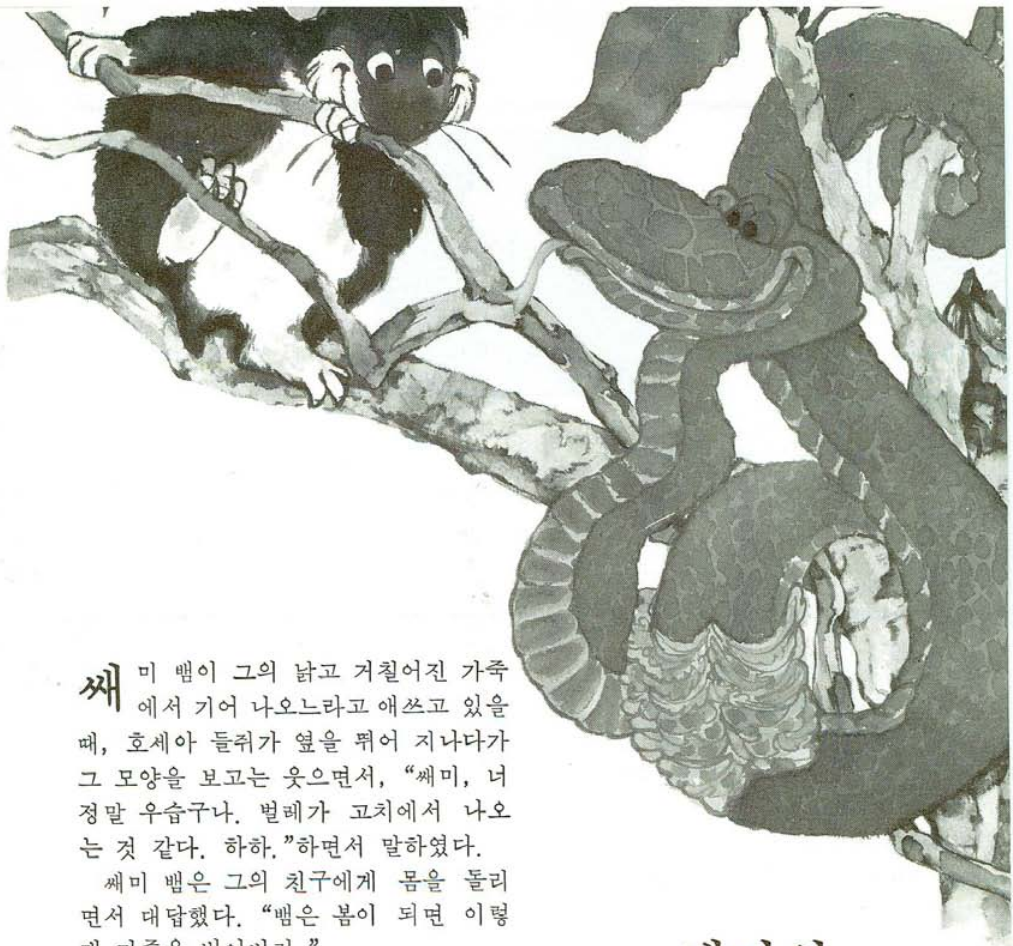
현세에서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바르게 생활하고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들은 모두 하늘에서 예수 님과 함께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기는 실제로 그들의 특별 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나는 매일 매일 그의 특별한 아들을 더욱 더 사랑 하는 바로 그 아버지이며, 나의 아내 곧 그의 어머니는 그를 더욱 더 사랑합 니다.

사랑이 깃든 가정에서 사는 모든 어 린이는 자기가 매우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썩미 뱀이 그의 낡고 거칠어진 가죽에서 기어 나오느라고 애쓰고 있을 때, 호세아 들쥐가 옆을 뛰어 지나다가 그 모양을 보고는 웃으면서, “썩미, 너 정말 우습구나. 벌레가 고치에서 나오는 것 같다. 하하.”하면서 말하였다.

썩미 뱀은 그의 친구에게 몸을 돌리면서 대답했다. “뱀은 봄이 되면 이렇게 가죽을 벗어버려.”

“왜 가죽을 벗어야 돼니? 옛날 가죽도 벗지던데.”라고 호세아가 말하였다.

“해마다 내 몸이 커지기 때문에 가죽이 내 몸에 맞지 않는걸.” 썩미가 설명하였다. “겨울 동안 나는 잠을 자는데, 잠자고 있는 동안 옛날 가죽 밑에 새 가죽을 만들게 돼. 봄이 되어서 잠이 깨면 내 옛날 가죽은 말라 있단다. 가죽은 내 배에서 갈라지지. 그러면 나는 그 가죽에서 기어나오는 거야. 해마다 다시 태어나는 셈이지.”

호세아는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하였다. “이상하다. 옛날 가죽을 늘

썩미의 새로운 가죽

이면 되잖아? 나는 그렇게 해. 이것 봐!” 들쥐는 양볼에 바람을 넣어 작은 둥근 얼굴이 마치 탁구공처럼 되게 만들었다.

“아냐, 아냐? 너는 이해못해.” 썩미는 약간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 피부는 네 것처럼 늘어나지 않을아. 내 피부는 내가 날카로운 바위 위를 기어다

너도 찢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고 질겨야 해. 내 피부는 뜨거운 모래와 오소리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오소리의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 뜯기게 되거든.”

“알겠다.” 호세아가 말하였다. “그런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피부라면 늘어날 수 있는 피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구나.”



호세아는 그의 뒷다리로 앉아서 씨미가 몸을 뒤척이며 점질을 빗는 것을 지켜 보았다. 마침내 그의 옛 가죽은 완전히 벗겨졌다. 씨미가 가죽을 다 벗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야, 이제 큰 일을 다 해냈구나. 슬슬 배가 고파지는걸! 뭐좀 먹을 게……” 그의 반짝거리는 눈길에 앞에 앉아 있는 살이 포동포동하게 쪼아 어린 들쥐에게 머물렀다.

호세아는 씨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렸다. 재빨리 그는 안전한 곳까지 뛰어 내려갔다. 그는 잠시 숨을 돌린 후에 씨미에게 말하였다. “안녕 씨미. 나중에 보자. 너 식사 끝난 다음에 같이 놀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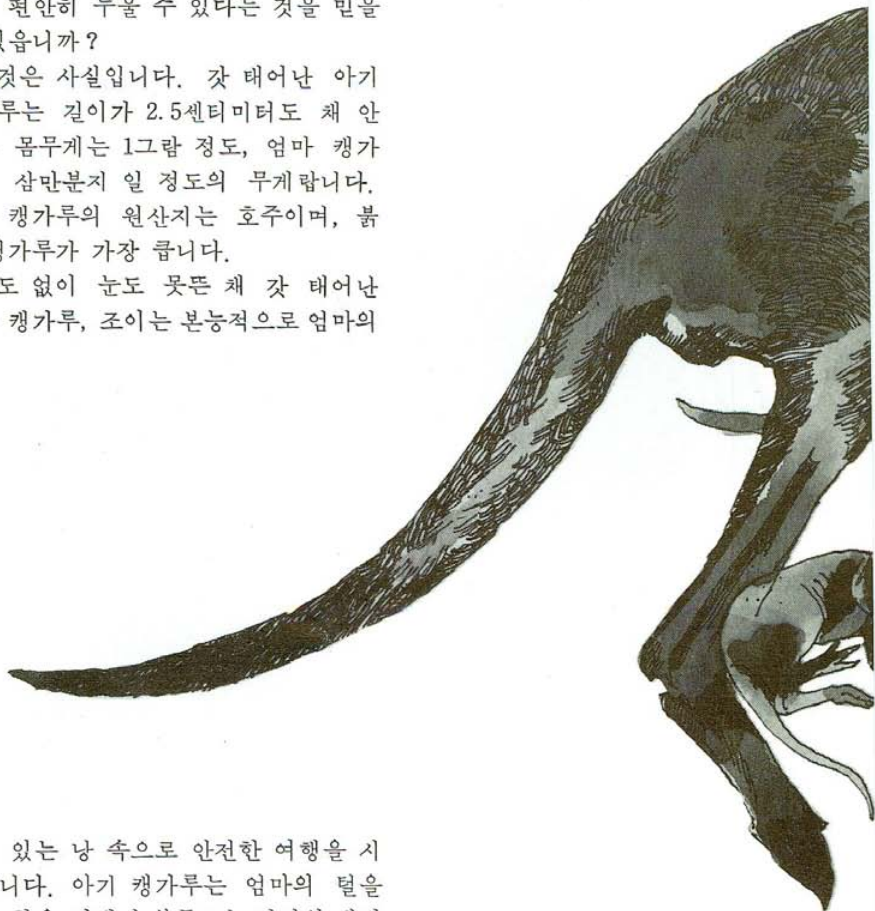
엄마 캥가루—진짜 아기 주머니

캐롤 케이플

아기 캥가루가 작은 차 숟가락 안에 편안히 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 캥가루는 길이가 2.5센티미터도 채 안 되고 몸무게는 1그램 정도, 엄마 캥가루의 삼만분의 일 정도의 무게랍니다. 모든 캥가루의 원산지는 호주이며, 붉은 캥가루가 가장 큼니다.

털도 없이 눈도 못뜨는 채 갓 태어난 붉은 캥가루, 조이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배에 있는 낭 속으로 안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기 캥가루는 엄마의 털을 있는 힘을 다해서 붙들고는 엄마의 배에 있는 낭 속으로 들어갑니다. (새끼를 데리고 다니기 위한 낭을 가지고 있는 짐승을 유대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아기 캥가루가 낭 속으로 들어가면 곧 아기 캥가루는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게 됩니다. 아기 캥가루는 젖을 빨 힘



이 없기 때문에 엄마 캥가루가 특별히 마련된 근육을 사용하여 젖을 짜서 아기의 입 속으로 넣어 줍니다.

아기 캥가루는 6개월 동안 엄마 캥가루에게 붙어 있으며, 그 후에는 어미 캥가루에게서 발견되는 독특한 호흡기를 사용하여, 일어나게 되는 질식을 막고 스스로 호흡할 수 있게 됩니다.

캥가루는 생후 5개월이 되면 예쁜 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낭으로부터 세상 밖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미 캥가루가 먹이를 먹기 위하여 멈추어 서면 아기 조이는 뛰어나와서 둘레를 뛰어다니며 풀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위험의 신호가 있으면 곧 아기 캥가루는 엄마에게 되돌아가 낭 속으로 머리부터 들어가 적을 피합니다.

부끄럽고 조용한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캥가루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 무섭고 강한 뒷발과 강한 꼬리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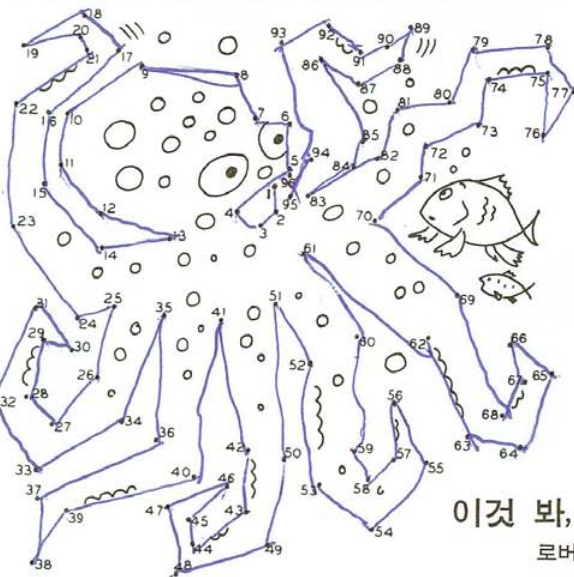
캥가루가 점점 자라면 어미 곁에서 뛰어다니기를 자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다리에 힘을 기르고 뛰는 기술을 익히게 되어 완전히 장성하면 캥가루는 3내지 9미터까지 넓게 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는 큰 위험이 닥칠 때에만 어미의 낭속으로 피신합니다. 어미 캥가루가 적에게 쫓길 때 도망가지 않으면 잡히겠다고 느껴지면 어미 캥가루는 아기 캥가루를 낭속에서 꺼내어 조심스럽게 관목 더미나 다른 안전한 곳에 숨겨 놓고는 도망합니다. 위험이 지나면 어미 캥가루는 다시 조용히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는 아기를 찾아 데리고 갑니다.

어미 캥가루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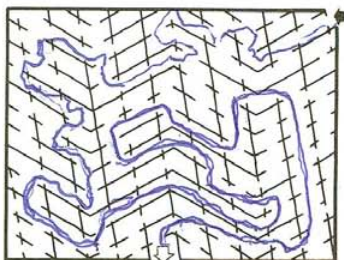
심심풀이



이것 봐, 손이 없잖아!

로버타 엘 페어를

미로



입구에서부터 선을 지나지 않고
출구까지 나가 보세요.

윌트 트래그



풍선은 그렇게
부는 게 아니야.



내 친구



데브라 조지

내 가 네 살이었을 때 우리는 아빠가 일하 시던 케이프 케네디 근처의 플로리다 주 멜버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동안 나는 종종 그곳으로 이사온 지 오래되지 않은 아주 훌륭한 가족인 크랜스톤 가족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대부분 그곳에서 나는 나와 동갑인 막내 아들 테드와 함께 놀았습니다. 어떤 때는 크랜스톤 아주머니가 다림질이나 옷을 쟁기는 동안 앉아서 아주머니와 이야기도 하였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크랜스톤 아주머니에게 이야기를 해드려도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들려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아주머니는 약간 놀란 표정이었으나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크랜스톤 아주머니는 어린 아이가 그토록 생생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에 놀라워서 그것에 대하여 나의 어머니에게 물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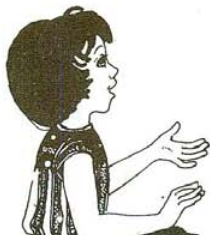
어머니는 그 아주머니에게 교회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아주머니의 말들을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가르치고 계시던 유년단에 보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는 유

년단에 가입하여 모든 필요 요건을 마쳤습니다. 그들 가족은 우리가 갖는 월례 집꾸리기 (백) 모임에도 왔습니다.

후에 우리는 그 가족을 특별 가정의 밤에 초대하였고, 선교사들이 “물론 소개”라는 필름스트립을 보여 주었습니다. 크랜스톤 가족은 이것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더욱 관심을 갖게 되어, 선교사들이 다시 와서 그들에게 복음 토론을 가르쳤습니다. 두 달 후에 나의 아버지께서 8세 이상의 크랜스톤 가족 전원에게 침례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침례를 받은 후 크랜스톤 아주머니가 가족이 모두 교회 회원이 된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가족은 플로리다주 티터스빌에서 금식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은 크랜스톤 가족이 이사가서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크랜스톤 자매님은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이었고, 크랜스톤 형제님은 제사 정원회 교민이었습니다. 크랜스톤 자매님은 간증을 드리면서, 오래 전 어린 소녀가 그녀에게 요셉 스미스와 그의 시현에 대하여 말해 주었던 그날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날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

기억해야 할 날





결정이 운명을 바꾼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결정이 운명을 바꿉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반드시 기억하여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자유와 영생이 주어지게 되나, 불순종은 속박과 사망을 가져옵니다.

세계의 역사는 아주 작은 결정에 영향을 받으며 인생사도 그러한 것이라고 몇 해 전에 어떤 사람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결정이 운명을 바꿉니다.

결정은 영원한 결과를 수반합니다. 예를 들면, 예언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결정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방주라고 일컬어지는 배를 만들고 있을 때 그들은 그를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 칠줄 모르게 되자 조롱과 비웃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의 지시에 상반되는 결정을 내렸으며 자신의 목숨으로 그 결정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레이먼과 레뮤엘이 돌아가서 레이먼

의 판을 가져 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결정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경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불평하면서 “우리에게 명한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니일 3:5 참조)라고 말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축복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니파이는 명을 받았을 때 아름다운 태도로 이렇게 임하였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였으며, 이같은 순종에 따르는 놀라운 보상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는 성구를 읽은 14세의 소년의 결심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그는 야고보의 서한을 시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숲으로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작은 결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고 특별히 말일성도 예수 그리

스도 교회의 회원인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게 된 결정이었습니다.

13세기에 몽고인들이 몽고에서 나와 지금의 터키와 이란이 있는 지역을 휩쓸고는 유럽으로 진입하였을 때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비엔나 시 입구에 와 있었습니다. 몽고군 지휘자인 수에테이가 그의 기마대를 이끌고 바야흐로 서부 문화를 전멸시키려 그곳에 섰을 때 이미 서부 유럽과 그 문화는 운명을 다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몽고에서 한 사신이 오게데이 대왕이 서거하였다는 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수에테이는 계속 진군하여 서부 유럽을 정복할 것이냐 아니면 몽고로 돌아가 다시는 서부 유럽을 위협하지 말 것이냐 하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작은 결정이라 할 수 있겠으나 결과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나는 제2차 세계 대전사를 읽으며 그 당시에 내렸던 가장 큰 결정의 하나는 아이젠하워 대장과 그의 최고 참모 회의에서 놀만디 해안으로 프랑스를 공략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적의 참모진에서는 연합군이 칼라이로 침입해 오리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적은 우수 병력을 칼라이에 주둔시켜 상륙해 오는 연합군을 피멸시켜 바다 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어 전략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은 놀만디 해안으로 상륙하여 적의 심장부를 가로질러 갔고 적의 공격군이 그들을 쫓기 전에 이미 저들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고 제2차 세계 대전은 종식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운명을 바꾼 결정이었습니다.

모든 청소년과 우리는 모두 지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놀만디 해변의 공격에 관한 것이 아니며 비엔나로 향하는 몽고군의 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내렸던 결정과 똑같은 결정을 내리도록 지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소년이 모두 내려야 할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정은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어떠한 신앙을 가질 것인가? 둘째,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셋째,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첫째, 어떠한 신앙을 가질 것인가?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찾아내야 할 책임을 모든 사람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경과 다른 표준 경전을 읽고, 그 가르침을 면밀히 연구할 때 교리에 대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 7:7 참조) 우리의 탐구가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59년부터 1962년 사이에 나는 캐나다 토론토에 본부가 있는 캐나다 선교부를 관리하는 특별한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그곳에서 몬슨 자매와 나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450명의 청년 청년들과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특별한 경험 중에서 몬슨 자매에게 지극히 큰 의미를 주었던 한 가지 경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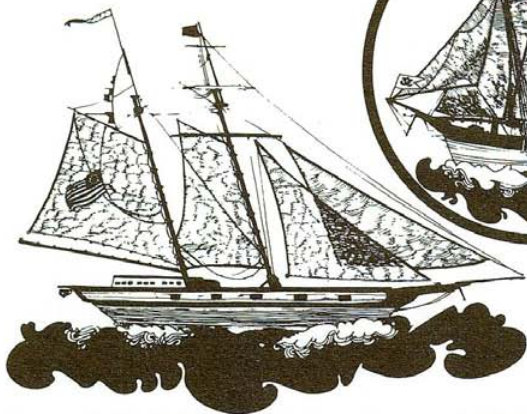
일요일, 몬슨 자매는 항상 바른 선교 본부에 혼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울리기에 받았더니 네덜란드 액센트를 가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물론 교회 본부지요?” 몬슨 자매는 토론토에 있는 물론 교회의 본부라고 대답하고는 “도와 드릴까요?”라고 물었더니 상대방은, “예, 우리는 고국인 홀랜드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 물론에 대하여 좀 배울 기회가 있었지요. 우리는 물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훌륭한 선교사인 몬슨 자매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전화를 걸었던 여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수두를 앓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다면 그때에 선교사들을 부르고 싶은데요.” 몬슨 자매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몬슨 자매는 우리 선교 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두 선교사에게 흥분에 가득찬 채, “아주 훌륭한 구도자들에게요.”라고 전하였고 선교사들도 동의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몇몇 선교사들이 가끔 그렇듯이 그들도 그 집을 방문하는 것을 자꾸만 뒤로 미뤘습니다. 날이 주로 바뀌고 주가 여러 주로 바뀌었습니다. 몬슨 자매는 늘 “장로님들, 오늘 그 화란 가족을 방문하실 수 있어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은 “저, 오늘 저녁은 바쁩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몬슨 자매는 또 묻습니다. “화란 가족은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방문해 주시겠어요?” 대답은 역시 같았습니다. “저, 오늘 저녁은 너무 바빠요. 그러나 계획 일정에 넣겠

습니다.” 마침내 몬슨 자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장로님들이 오늘 저녁에 그 가족을 방문할 수 없다면 제가 남편과 함께 그 가족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오늘 저녁에 방문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가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가족 전원이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 가족은 제이콥 디오거 가족이었습니다. 디오거 형제는 장로 정원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회사인 세계적인 필립스 회사의 경영주는 그에게 멕시코로 전직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크게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였습니다. 후에 그는 홀랜드의 여러 선교부장의 보좌가 되었고, 다음에는 십이사도 지역 대표가 되었으며, 다음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이 되어 동남 아시아의 행정 관리를 맡아 일하는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선교사들이 디오거 가족을 방문하기로 한 결정이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몬슨 자매가 “장로님들이 오늘밤에 그 가족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방문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중요한 결정이었습니까? 디오거 가족이 캐나다 토론토의 선교 본부로 전화를 걸어, “저희 집에 선교사들이 올 수 있을까요?”라고 말한 것이 중요한 결정이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결정은 디오거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영원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어, 화란어, 독일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으며, 지금은 중국어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생 동안 일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 여러분은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개심은 디오저 형제 자매의 그것처럼 극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있어서 개심은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영원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을 탐구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진지하게 다루도록 합시다.

이제 두번째 질문입니다.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나의 개인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내가 유타 대학 1학년을 위한 무도회에서 웨스트 고등학교 출신의 여학생과 춤을 추고 있을 때 이스트 고등학교 출신의 어느 여학생이 그녀의 파트너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프란시스 존슨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녀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다만 처음 그녀를 본 순간에 나는 바로 내가 만나고 싶어하던 형의 여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쪽으로 춤을 추며 가버렸고 그후 3개월 동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솔트레이크시의 동13가 남2가에서 전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도회에서 보았던 그녀가 다른 여자 친구 한 명과 국민학교 때 알았던 남학생과 함께 길 건너편에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그 남학생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결정에는 용기가 필요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마음속으로 이런 격언이 떠올랐습니다. “결정의 때가 이르렀을 때는 이미 준비의 때는 지난 후이다.”

나는 몸을 곤두세우고 있는 용기 없는 용기를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기회를 향하여 돌진하였습니다. 나는 그 남학생에게 걸어가서 말하였습니다. “너 국민학교 때 친구 아니니?” 그러자 그는 내게 말하였습니다. “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나는 그에게

나의 이름을 말해 주었고 그도 나에게 이름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후에 내 아내가 된 그 여학생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날 나는 내 학생 수첩에 프란시스 비버리 존슨을 방문하겠다고 적어 놓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결정은 내가 했던 모든 결정 가운데서 가장 큰 결정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적령기에 있는 젊은이들은 누구나 이같은 비슷한 결정을 내려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데이트 상대뿐 아니라 결혼 상대자를 선택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때에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권능에 의하여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지나치게 구혼을 서두르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을 충분히 알아야 하고, 두 사람이 같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길을 향해 나아가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해 오는 많은 귀환 선교사들에게 나는 여러 번 면담을 맡아 권고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귀환 선교사들이 각기 저들의 선교부장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선교부장이 교육자인 경우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교육자가 되기를 원하고, 선교부장이 사업가이면 많은 수가 사업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선교부장이 의사이면 많은 선교사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사람을 본받으려는 자연적인 발로입니다. 귀환 선교사들과 모든 젊은이들에게 나

는 이런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생 동안 일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 여러분은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는 여러분의 두뇌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재정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분야이어야 합니다.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생의 사업을 택함에 있어서 이러한 조건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좋아하시던 구절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을 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멀리 있는 목표를 향하여 시도할 것이냐, 현재의 위치에서 만족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클린턴 티 하우웰, 삶을 위한 계획에서, [뉴욕 : 그로셋 앤드 던랩, 1970년], 30페이지)

적절한 준비는 생각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높여 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패를 변명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초에, 연합군의 유명한 지휘관의 한 사람인 대영제국의 슬림 자작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오랜 후에 그는 1940년 카르토움 전쟁에서 내렸던 결정에 대하여 이렇게 술회하였습니다. “그릇된 계획을 세웠던 다른 많은 장군들처럼 나도 변명을 하자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단 하나…… 곧 나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결단이 내 앞에 제시되었을 때 나는 훌륭한

한 지휘관이 마땅히 택해야 했을 담대한 길을 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느꼈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말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화공학을 공부할 만큼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쉬운 학문을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어려운 과목 또는 복잡한 분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쉬운 길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길을 택하여 여러분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보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실패하거나, 원하는 최고 학점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것으로 낙담하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스터 더블류 니미즈 제독의 경험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해군 소위로 졸업하였을 때 그는 최초의 사령선으로서 낡고 오래된 구축함을 받았읍니다. 구축함의 이름은 디캐츄어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구축함이 출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의 처녀 항해 중에 니미즈 소위의 배는 암초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군법 재판에 즉시 회부되었습니다. 체스터 니미즈가 보통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 사건이 그의 진로를 완전히 막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그같은 좌절을 뒤로 밀어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력이 모여 있는 태평양 함대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이들에게

단 한번의 실수가 훌륭한 인재를 거구려뜨릴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나의 신앙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도움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나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교리와 성약 제 9편을 읽고 이해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대목은 종종 가볍게 묵과되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요셉 스미스가 주님께서 그에게 권고하신 방법이라고 지적해 준 방법으로 구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9편에서 예언자 요셉을 통하여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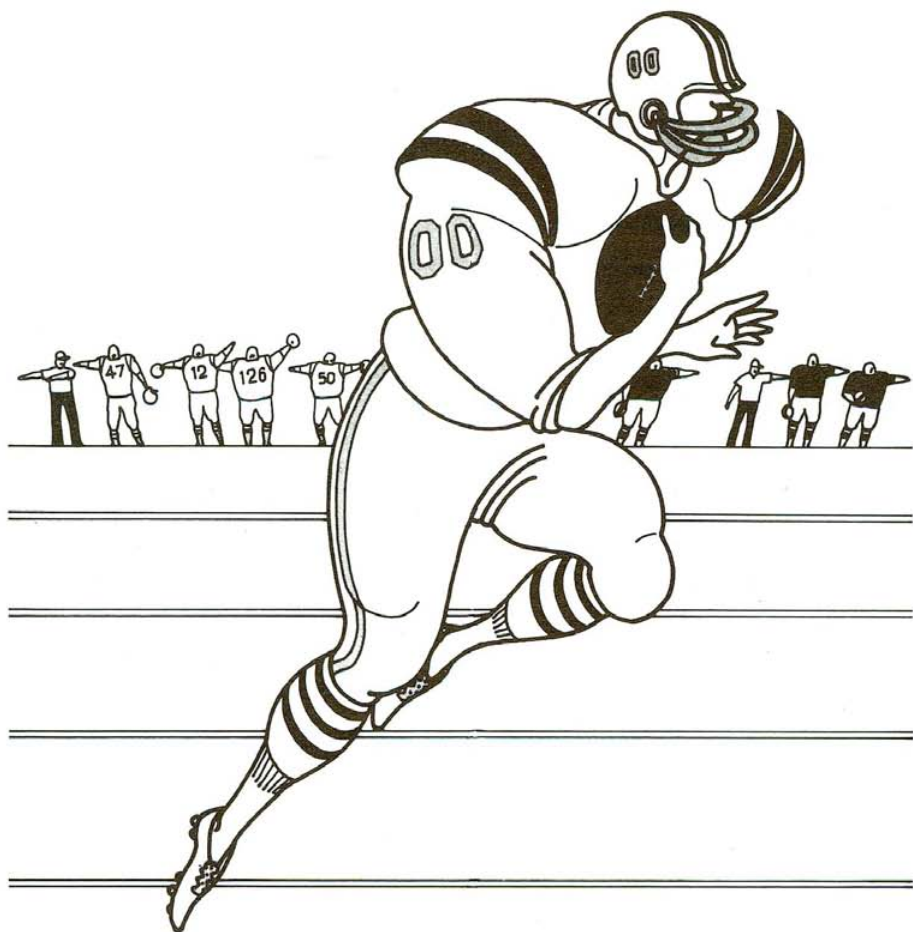
“보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일 줄 느끼리라.

“그러나 옳지 아니한 일이면 그같은 느낌이 없고 다만 무감각해져서 옳지 아니한 일을 잊게 하리라.”(교리와 성약 9:7-9)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감의 지침입니다. *

“리헌 의향방 대반”선 에픽림올



올림픽에 선 “반대 방향의 헨리”

캐드린 곤스와 레이어드 로버츠

여러분은 필사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했던 일에 철저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반대 방향의 헨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세의 헨리 마쉬는 미식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중학교 미식 축구 팀이 텍사스주 선수권을 차지하고, 이웃의 오클라호마주의 주 선수권을 얻은 중학교 축구 팀과 갖는 연례 축구 시합에 나가게 되었을 때, 모든 일이 좋게 보였습니다. 이날은 이 어린 소년에 게 있어서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헨리는 15분이 한 쿼터로 되어 있는 경기의 세 쿼터가 진행되는 동안 자기 팀이 공을 가지고 뛰고 차고 던지면서 운동장 끝에 있는 그들의 골에 넣기 위하여 열심히 싸우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마지막 네번째 쿼터 후반에 점수가 동점이 되었고 마침내 그가 운동장에 나가 뛰게 되었고 그는 세상에 도전하여 경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 팀이 그들의 골을 향하여 공을 낮게 찼습니다. 그러자 헨리의 팀의 선수가 그 공을 빼앗아 움켜 쥐고는 뒤통이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을 가로챈 선수가 공을 헨리의 손으로 넘겨 주었습니다. 스타디움에 모인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헨리가 더욱 놀랐습니다.

이제 헨리는 그의 짧은 축구 경력에

서 가장 큰 기회를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쿼터를 울리는 군중들의 함성을 들으면서 그는 거의 머뭇거리릴 틈도 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운동장을 뛰어갔습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뛰는 길에 장애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군중들은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그를 바라보며 역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매우 당황한 오클라호마 팀이 그가 너무 많이 뛰어나가기 전에 그를 제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헨리가 대단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였는가를 헨리가 깨달았을 때, 갑자기 군중의 함성이 헨리의 귀에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치욕에 소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반대 방향의 헨리”에 대한 군중의 함성은 변하였었습니다. 이제 그는 1976년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 선수의 일원으로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경기장에서 들은 그 함성을 기억합니다.

중학교 미식 축구 팀에서부터 올림픽까지의 헨리의 이야기는 아무리 크게 실패하였을지라도 그것이 다시 정상을 회복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13세인 중학 2학년에서 그는 주에서 장거리 주자 제7위를 기록하였고, 중학 2학년에서 그는 연습삼아 하루에 16킬로미터를 달렸습

니다. 그의 가족이 하와이로 이사한 후에 그는 주 횡단 주자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헨리에게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브리검 영 대학 1학년 동안 그는 순회 육상 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차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하는 그의 코치가 “마쉬를 장애물 경기에 도전시켜 보면 어떨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장애물 경기는 단단한 허들과 물의 장애 등의 장애물이 있는 길은 3.2킬로미터 달리는 경기입니다. 그해에 헨리는 그와 경쟁하는 대학 육상 선수들 가운데에서 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헨리 마쉬에게 있어서 선교 사업은 그다지 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전부터 그가 원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부름이 왔을 때, 재차 고려해 볼 여지도 없었습니다.

2년간의 선교 사업을 마치고 새로운 헨리 마쉬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근육은 다소 완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는 새로운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헨리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결코 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아무에게서도 장학금은 나오지 않았고 코치도 그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간 그는 순수한 즐거움으로 달리기를 연습하였습니다.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팀에 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해 1월에 그는 두 명의 장애물 주자가 팀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팀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후 그는 사표를 멀리 내다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

다. “헨리, 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려면 나가서 해 봐야 한다.” 일주일 후에 그는 다시 팀에 복귀했습니다.

그것은 경쟁자로서의 헨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여전히 이따금씩 실패하였으나, 실패할 때마다 조금씩 발전하였습니다. 올림픽 예선전에서 그는 우수 선수보다 22초나 앞서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얼 올림픽 경기에서 그는 장애물 경기 결승점에 도전할 자격이 있는 미국의 유일한 선수였습니다.

헨리는 꿈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올림픽 경기,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세계적인 최우수 육상 선수들과의 만남, 그리고 시험 등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는 자기 기록을 4초 단축시켜 장애물 경기 제10위가 되었습니다. 장애물 경기의 연령 제한은 29세였으며, 그는 21세로 그 경기에 입한 선수들 중 두번째로 연소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1979년 7월 8일, “반대 방향의 헨리”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린 판아메리칸 게임에서 장애물 경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게임에서의 기록은 8분 43초 5였으며 그의 평균 기록은 8분 21초 5입니다. “이것은 내 캐리어의 가장 극치였습니다.”라고 마쉬는 말하였습니다.

3주 후인 7월 25일, 헨리 마쉬는 러시아 스파르타케이드 게임에서 3,000미터 장애물 경기에서 이겨 두번째의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올림픽 예선전으로 15개 공산 국가를 위하여 열린 러시아 게임에서 마쉬는 8분 28초 09에 대기 위하여 마지막 결승점 가까이에서 “사력을 다하였다”고 관측자들은 말하였습니다.

1980년 올림픽을 위하여 헨리는 다만 그에게 있어서의 목표는 매일 매일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목표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뛰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비라 에이치 저지

영을 동반할 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켈 리포니아주 산타아나에 사는 샘이 거즈가 12살이던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오는 그는 다소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다. 어머니가 그에게 내미는 과자 접시에서 과자 하나를 집어들면서 그는 말하였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아주 좋은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것 참 잘됐구나.” 그의 어머니, 도나 이거즈가 말하였다. 그녀는 컵에 우유를 담고 있는 아들 옆에 앉았다. “그래, 그애 이름은 뭐래?”

“마이크 워티.”

“워티? 너의 학교에 다니던 쌍둥이

아이들 말이나?”

“맞아요. 마이크와 개리예요. 마이크는 우리반이 되었어요. 엄마.” 샘의 얼굴은 좀더 심각해졌다. “엄마, 마이크는 분명히 좋은 물몬이 될거예요. 그애를 교회로 초대해도 될까요?”

“아무렴, 물론이지.” 어머니가 다른 말을 하기도 전에 샘은 결정하는 데 단 일분도 지체할 수 없는 듯이 밖으로 뛰어 나가 마이크를 찾았다. 이거즈 자매는 미소를 지었다. “저애는 벌써부터 선교 사업에 대한 열성이 대단해. 때가 되면 훌륭한 선교사가 되겠지.”

때가 되면, 아들의 선교 사업은 벌써

시작되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 같께. 언제지? 개리도 데리고 가도 되니?” 마이크는 샘의 권유를 상당히 기쁘게 받아들인 것 같았다.

“그럼, 개리도 데리고 와.” 샘이 말하였다. “일요일 5시에 너의 집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을께.”

“오전이니, 오후니?” 마이크가 물었다.

“오전이지 물론.” 샘은 마이크가 그 말을 믿으리라고는 결코 꿈도 꾸지 않고 그렇게 대답하였다.

그러나 마이크는 샘의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였으며, 일요일 오전 5시에 똑같이 생긴 두 형제는 그들의 집 앞 모퉁이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포기하고는 다시 잠자려 들어갔다.

후에 마이크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샘을 찾았다. 샘이 시간을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하여 웃자 그는 “이상한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긴 했었어.”라고 말하였다. 그날 오후 성찬식에 마이크와 개리는 샘과 다른 집사들이 성찬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 “재미있겠다.” 샘이 그들 옆에 앉자 그들이 샘에게 속삭였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거니?”

“침례받고 나서 집사가 되어야 해.” 샘이 속삭였다. “나중에 설명해 줄께.”

교회가 끝난 후에 마이크와 개리는 샘이 자기 아버지는 감독단 보좌이기 때문에 연단에 앉은 것이라고 설명을 할 때 주의깊게 들었다. 샘은 또한 소년이 12살이 되면 합당할 경우 집사 신권에 성임되며, 그렇게 되면 성찬을 전달하게 된다는 것도 설명하여 주었다.

“신권? 집사? 성임?”

그날 밤 침대 속에서 마이크와 개리는 어린 소년들이 신권이라는 이상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새롭고 이상한 교회에 대하여 오랫동안 이야기하였다.

그밖에도 이 교회에는 이상한 점이 많았다. 사람들이 다정했다. “이리와서 우리와 같이 앉자.”라고 몇몇 소년들이 권했었다. 어른들은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너희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쁘다.”고 했을 때 진실인듯 느꼈다.

많은 어린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부모와 함께 앉아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사랑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어떻게 이 비회원 가정에서 자라온 두 소년이 이름 외에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의 모임에 가려고 5시에 충분히 준비하기 위하여 자명종을 3시 30분에 울리게 해놓게 되었을까?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우리는 12살밖에 안되는 어린 소년이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교회라도 가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읍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교회를 다녀 보았고 어떤 교회는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샘의 교회가 아침 5시에 시작한다면 한번 가 보자고 생각했던 것이었읍니다.”

후에 그들에 관하여 샘의 부모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마이크와 개리의 종교적인 생활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항상 준비를 해 놓기를 원하였고 모든 일에 시간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마이크와 개리의 부모가 그들의 침례를 승인해 주실 때까지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에 두 쌍둥이 형제는 신권회, 주일학교, 성찬식 모임 등등 모든 모임에 열심으로 참석하였다. 그곳에서 발견한 따스한 우정이 그들을 계속 모임에 나오게 만들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그들은 물론경과 또한 요셉 스미스가

모임에서 복음에 대하여 많이 배웠다. 그러나 이거스 집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영원한 원리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력을 얻게 되었다.

이들 두 소년의 열심과 진지한 태도에 감동을 받은 이거스 가족은 매주 한 번씩 그들을 그의 집으로 초대하여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곧 션과 역시 선교사의 열의로 가득

어떻게 이 비회원 가정에서 자라온 두 소년이 이름 외에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의 모임에 가려고 5시에 충분히 준비하기 위하여 자명종을 3시 30분에 울리게 되었을까?

그것을 번역하였다는 사실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서도 큰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믿었다.

그들은 또 이렇게 설명하였다. “우리는 또한 말일성도 교회의 교사들과 친구들이 우리의 질문에 모두들 열심으로 답해 주는 것에서 크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 점은 우리가 전에 다녀 보았던 다른 교회와는 아주 다른 점이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가 물으면 그들은 ‘하나님만 그런 것을 아서, 우리는 그런 것을 알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이크와 개리는 그들이 참석한 반과

차 있던 션의 동생 스콧은 다른 친구들을 초대하기 시작하였다. 이거스 부부는 션과 스콧의 친구들을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공교롭게도 비회원의 자녀들이었다.

회원들은 곧 자기들도 비활동 회원 또는 비회원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느냐고 물어 왔다.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갔다. 해가 지나면서 주례 가족 복음 토론에 참석하는 소년들의 수는 20여 명으로 늘어났다.

가정의 밤 교재가 그들의 지침서가 되었다. 이거스 자매님은 토론 전에 갖는 공과의 책임을 맡았다. 그러나 가끔 그녀는 소년들에게 공과를 지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험과 이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다.

공과가 끝나면 청소년들은 작고 큰 문제를 가리지 않고 의심나는 것은 모두 질문하였다. “이해하지 못하겠거나 의문이 나는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고 늘 소년들에게 격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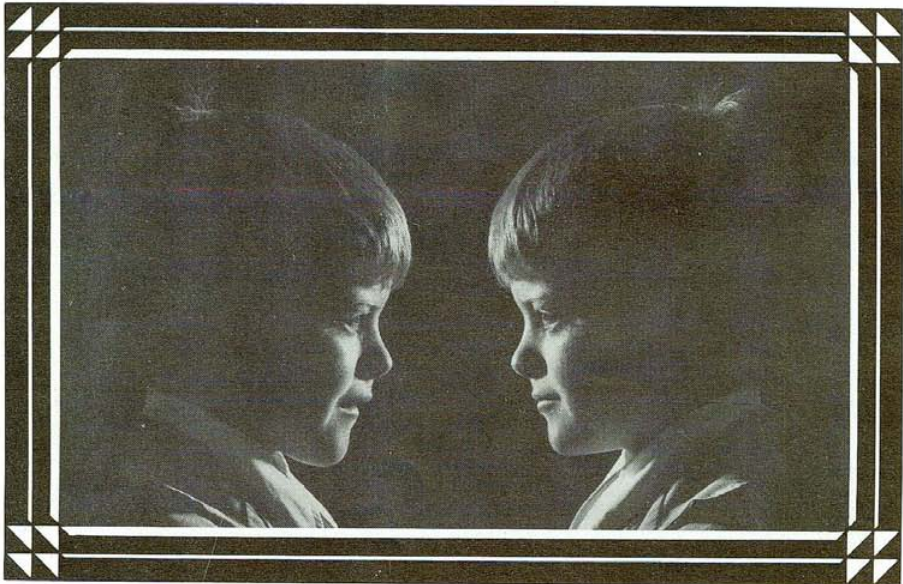
“모든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조심스럽고 사려깊게 다루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경전을 읽고 모임을 마쳤습니다.” 이거스 형제는 설명하였다. “이 어린 소년들이 복음에 대하여 이해력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부모와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을 간직하고

그들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규 가정의 밤에서와 같이 간식은 우정을 돈독히 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 그룹 소년들은 자진하여 간식을 준비하였다.

그룹은 함께 활동을 갖기로 하였다. 홀리 스케이팅, 얼음 스케이팅 파티, 영화, 캠핑, 등산, 낚시, 생일 파티 등을 함께 즐겼다. 그들은 선교사들에게 위문품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든 활동을 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한해의 가장 큰 행사는 모든 소년 소년들의 부모와 함께 갖는 성탄절 파티였다. “이 연례 행사는 가족들에게 교



“좋아, 샘의 교회가
아침 5시에 시작한다면 한번 가보자.”

회와 교회의 프로그램을 이해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라고 이거스 형제는 말하였다.

셈과 스콧은 그룹에 더욱 열의를 쏟았고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 동안에도 내내 이 그룹에 속했던 친구들과 긴밀한 우정을 나누었다. 마이크와 개리가 칩레를 받던 날, 셈이 칩레식에서 말씀을 하였다. 이거스 가족이 성찬식 모임에서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발표하도록 부탁받았을 때 마이크와 개리도 그들과 함께 참여하도록 지명받은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마이크는 여름에 이거스 가족과 함께 시에라 산맥으로 야영 여행을 떠났으며 그와 함께 그룹의 일원이었던 톰 월도 페리를 타고 알레스카로 가서 알칸 고속도로로 돌아오면서 템플 스케어를 돌아 보는 6주간의 여행에 참여하였다.

그것이 톰의 일생의 전환기가 되었으며, 그는 다음해에 그룹 회원 중 처음으로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 나갔다.

어느 날 저녁 모닥불을 피워 놓고 모임을 갖는 노년의 모임에서 쌍둥이 형제 중 한 사람이 “우리가 전부 동시에 같은 선교부로 부름을 받게 된다면 기가 막히게 좋을 텐데.”라고 말하였다. 이 말에 모두는 크게 웃으면서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같은 와드 출신도 같은 때에 같은 곳으로 부름을 주지 않는 걸.” “불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기쁘게도 세 사람이 같은 날 선교사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마이크와 셈이 에콰도르 퀴토 선교부로, 그리고 개리가 코스타리카 산호세 선교부로 부름받은 것이었다. 모두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선교부였다.

그들은 이거스 형제(현재는 이거스 감독)가 그의 새로운 임무로 부름을 준 첫번째 선교사들이었다. 이들 세 사람은 같은 날에 본부 선교 본부로 들어갔다.

다음해에 스콧이 역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콜롬비아 보고타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다.

“아이들을 로스앤젤레스 신전에 데리고 가는 특권을 받게 된 것은 정말로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이거스 감독과 그의 부인은 이 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엔다우먼트를 받고 나서 이들 후에 소년들은 최근에 귀환한 와드의 귀환 선교사들과 약속하여 오전 6시에 함께 신전으로 떠났다.

그들의 자랑스러운 감독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을 보는 것이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바닷가로 가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집으로 갔기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셈이 마이크 우리를 모임에 처음으로 데리고 왔던 때로부터 11년이 지났고, 토론 그룹의 모든 소년들은 각기 제 길을 갔다. 그중 9명이 신전에서 결혼하였고, 5명이 선교 사업을 마쳤으며, 마이크와 개리의 여동생 도나와 웨리를 포함하여 8명이 칩레를 받았다. 게다가 신앙에서 흔들리던 많은 소년들이 지금은 강한 간증을 갖게 되었다.

12세의 어린 소년이 지냈던 선교사 정신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 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였겠는가? 마이크의 적절한 말처럼 “영을 동반할 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
* * *

